

2019

교회여남평등주간 예배준

# 소중한 '나 와 너'를 찾아가는 예배



\*2019년  
교회여남평등주간은  
12월 8일(일)-14일(토)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2019년 12월 2일(월)  
오후 4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있습니다.

## ❄️ ❄️ ❄️ 알리는 말씀 ❄️ ❄️ ❄️

1. 2019년 교회여남평등주간은 12월 8일(일)-14일(토)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2019년 12월 2일(월) 오후 4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교회여남평등주간 중, 목요일(12/12)에는 성폭력, 젠더 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은색 옷 입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30년 이상을 진행한 'Thursdays in Black' 캠페인에서 기인합니다.  
<https://www.oikoumene.org/en/get-involved/thursdays-in-black>
3. 예배문은 제68회 여성위원회의 예배팀(강하니사제, 이은주목사, 홍보연목사, 황보현목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개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교회여남평등주간 예배문

## “소중한 나와 너를 찾아서”

\*교회여남평등주간은 교회협 제48차 총회가 제정한 주일이며, UN 세계인권선언일(12.10)이 있는 주간을 한국교회가 평등문화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위원회는 여성인권에 대한 의제들을 선정하여 자료집을 제작하거나, 캠페인을 진행,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68차 총회(2019)를 맞이하여 여성위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보다 여남평등주간을 기억하고, 함께 여성 이슈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문을 작성,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회의 예전

#### 예배로의 초대

잃어버린 나, 상처 입은 나, 외면당한 나, 부수어진 나, 주변인 된 나, 혐오당하고 배척당한 나, 차별 당하고 강도당한 나, 모든 '나'를 이 예배에 환영하며 초대합니다.

#### 찬 송

주님 너를 고치시며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Il Sig - no - re ti ri - sto-ra. Di - o non al-lon - ta - na. Il Sig -

C#m B E F#m F#m B E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주님  
no - re vie-ne ad in-con - trar - ti. Vie-ne ad in-con - trar - ti. Il Sig -

B7 F#m G#m C#m G#m A F#m C#m F#m7 B C#m

#### 참회의 기도

아프고 외로웠던 나, 우리 모두를 돌아보지 않았던 '나'와 '공동체'를 참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것을 잊고 살았음을 참회합니다. <침묵>

#### 용서에 대한 사

인도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느 9:17)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니 새로운 마음을 품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말씀의 예전

여성시편 92편

- 인도자** 이 땅의 민중과, 민중 가운데 더 낮은 존재인 여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 회 중** 세상풍파에 시달리다가도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품이 있어서 좋습니다.
- 인도자** 굿거리장단, 자진모리장단, 덩실덩실 우리 가락에 몸을 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 중**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은밀히 펼쳐나가는 새 창조사역을 생각하면 기운이 펄펄 납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 인도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조화롭습니까? 우리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눈물겹습니까?
- 회 중** 남성우월주의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파벌주의에 물든 자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 인도자** 아직도 당회와 제직회 때마다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며 여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들과 “여자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하느니 차라리 제직을 그만두겠다”며 큰소리치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 회 중** 그러나 교회를 섬김과 나눔의 생명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 인도자** 자신의 편견을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다 뒤틀린 세상질서를 그대로 이식하려는 행악자들은 모두 흠여지고 말 것입니다.
- 회 중**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여성들을 평등한 터 위에 세우시고, 심지가 굳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 인도자** 여성들의 건강한 바람과 수고마다 사사건건 휘방을 놓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을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압니다.
- 회 중** 하나님의 심성으로 세상을 돌보는 새 창조의 일꾼들은 한겨울의 소나무처럼 늘 푸를 것입니다.
- 인도자** 하나님의 집에 이제 민주의 봄기운이 도니, 교회 여성들이 그 집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 회 중** 젊으나 늙으나 교회 여성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질서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 함 께**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올곧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하나님에게는 차별도, 위선도 없으시다.”

## 성경봉독

### 누가복음 15장 8-10절

8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9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 해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성서일과는 이사야 11장 1-16절입니다. <별첨- 성서일과>

## 말씀선포

###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기쁨

<별첨- 설교문>

## 응답과 다짐

인도자 상처 입고 홀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돌아봅니다.

회 중 그 탄식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인도자 외면당하고 고립된 이들 또한 또 다른 나임을 깨닫습니다.

회 중 부지런히 찾아 가고 마음을 열어 품겠습니다.

인도자 혐오당하고 배척당한 나, 차별 당하고 강도당한 나, 모든 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힘껏 찾고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 애찬의 예전

\*성찬집례는 2인이 진행합니다.

## 애찬으로의 초대

집례자 예수 안에서 일치로 초대된 여러분, 예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의 식탁에 참여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사랑의 식사를 통하여,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사귀음을 더욱 두텁게 하며, 우리의 사명을 더욱 깊게 다짐으로써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집례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목사님(사제님)과 함께 하소서.

## 성령임재의 기 도

**집례자**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의 식탁을 기억하며 애찬에 참여합니다.

**회 중** 이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베푸 많은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생각합니다.

**집례자** 씨를 뿌리고 가꾼 농부의 인내, 들판에 내리는 뜨거운 햇빛과 싱그러운 바람,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함 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식탁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 평 화 인 사

**집례자**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회 중**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집례자** 이제 서로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 주 의 기 도

신앙의 전통에 따라 주의 기도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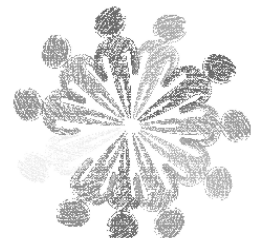
## 애 찬 나 눔

**집례자** (빵을 떼며)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예수의 몸을 나눕니다. (잔을 따르며) 우리는 서로 다르나 애찬에 참여함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 감 사 기 도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위로자이며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의미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나와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했지만 잃어버린 것들, 지켜야했지만 포기했던 것들, 중요했지만 방치하고 버려두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파송의 예전

## 파 송 찬 송

우리 곁에 머무소서

*p* *mf*

우 리 곁 에 머 무 소 서 주 예 수 여 오  
 Bleib mit dei - ner Gna - de bei uns, Herr Je - su Christ. Ach,

Gm Eb EbM7 Eb<sup>6</sup> D Gm/D Dm7 Eb/D D

*cresc.* *f*, *p*

우 리 곁 에 머 무 소 서 빛 되 신 주 님  
 bleib mit dei - ner Gna - de bei uns, Du treu - er Gott. —

Gm Eb Cm F Bb Cm Bb/D F Gm D

## 공 동 축 도

잃어버린 나와 너를 되찾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풍성함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 파 송 사

인도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시다.  
 함 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 〈별첨1- 성서일과〉 이사야 11장 1-16절 (새번역)

-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 2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 3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 4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 5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 6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 7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 8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젓 뺀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 10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 11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앗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 12 주님께서, 못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 13 그 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 14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 15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굽이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일곱 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 16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앗시리아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 <별첨2- 설교문>

###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기쁨 (눅 15:8-10)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으로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투덜거리는 소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려 흥겨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찌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어찌 저들을 용납하는가?’ 하는 놀람과 의구심,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잃었다 찾는 비유들을 말씀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더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공동체 내부와 외부로 가르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내부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혹 그들을 임시라도 공동체 일원으로 용납한다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나치는 독일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고 분리함으로 대대적인 유대인 집단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집단학살의 시작을 보면 너와 나는 다르다는 분리,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는 구별이 차별로 이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생각보다 민족, 종교, 장애, 성(性) 등을 근거로 공동체의 경계를 만들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많은 공동체 안과 밖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경계선을 만납니다. 아직도 여성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그룹에는 여성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의 담임은 꼭 남성이 말아야 하는지요?

오늘 잃은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집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말해보자면, 우리는 우선 그 여인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동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중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그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고령사회의 한복판에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문제가 바로 우리 집안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5일 근무하는 일상적 업무에 이어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날에는 새로운 일터인 부모님 집으로 출근합니다. 91세, 84세인 부모님만 사시는 집에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 휴일에는 딸인 제가 출근해서 부모님의 식사와 세탁 일 등 집안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노기과 질환이 있는 아버지는 누워서 주무시는 일 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저는 다시 어린 아들을 양육할 때 하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어린아이로 되돌아 가버린 부모님을 보면서 병약한 노인들도 우리 사회의 약자이자 주변인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체성도 수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57.3%인데, 지난 9월 104회 총회에서는 1,500명 총대 중에 여성 총대가 26명이라서 전체의 1.7%였습니다. 57.3: 1.7. 이 숫자는 교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교단의 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교단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성들 또한 중심보다는 주변부에 속한 잃어버린 동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동전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는 올바른 믿음, 가치관, 인권,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등등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부지런한 여인처럼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살살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부단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남성을 하나님으로 표현했지만, 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가부장적인 의식과 문화에 일대 변혁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의식과 문화를 평등적인 의식과 문화로 바꾸어나가려는 변화, 곧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동전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전은 물질이라 움직일 수도 없고 빛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찾아달라고 소리치지도 못합니다. 그대로 자신의 있는 자리에 묵묵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동전을 생각하면서 2013년 WCC총회에서 채택한 선교문서 <WCC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확언>을 상기합니다. 당시 선교의 방향을 말하면서 그동안 선교는 주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의 선교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주변부의 사람들이 저항의 담지자로 나서서 중심을 향해 오는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를 말했습니다. 저 또한 그 문서에 전적으로 동감했고, 그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일어나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지 하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차별적인 교회의 현실은 두터운 벽이었고, 더 좋은 전략을 짜고 더 열심히 두드려보라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왜 그만한 것도 못하냐는 여성에 대한 질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변부로부터의 선교'와 동시에 여전히 '주변부를 향한 선교'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1개를 찾고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기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나 암소 1/5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모든 벗들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미국 스크랜튼 대학의 스코트베이더 교수의 말대로 '구원은 단지 구출(rescue)이 아니고 영원한 축하(celebration)의 상태로 옮겨간다'는 말과 어울립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당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주인의 기쁨에 함께 환호하고 함께 춤추며 격하게 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같은 동전들이고 언제 어디에서 내가 그 잃어버린 동전의 위치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두를 용납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공동체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잃어버렸다 싶으면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 찾고 바닥을 쓸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도식으로 설명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관, 삶에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신앙인의 윤리들, 생명, 평화, 화해, 자비 등등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혹 잃어버린 상태라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오는 동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말도 못 하고 숨죽이고 있을 이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약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피고, 공동체 내부로 초대하여 그들이 그들의 불편함을 자유롭게 말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환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힘있게 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혜숙 목사 (예장전국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 NCKK 실행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